

# Touch

## Sarah Mei Herman



“성장은 내 작업에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주로 젊은 세대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며 생겨나는 변화를 주목하고, 그 변화의 덧없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려 한다. 특히 이 시기에 공존하는 어떤 강렬함과 취약함, 그리고 외로움을 묘사해내고 싶다.”

- 작가의 말 중에서

2014년 중국 샤먼에 있는 중국유럽예술센터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각 나라별 차이점들이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의식하는 것 또한 궁금했다. 특히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나 우정 같은 관계나 감정들.

나는 대학의 캠퍼스 안이나 샤먼의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사진에 담았다. 그들 중 몇몇과는 촬영을 거듭하면서 우정을 쌓기도 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샤먼을 재방문하며 작업을 지속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예전에 촬영했던 여성들을 다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변화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인물들을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친밀한 순간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친밀한 관계나 비밀스러운 순간까지도 내게 나누어줄 때 나 역시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①

- 사라 메이 허먼, 작가 노트





Haiqing, July 2015, Xiamen ©Sarah Mei Herman



Xiaoyu & Qiumo, June 2019, Utrecht ©Sarah Mei Herman



Yaki, November 2014, Xiamen ©Sarah Mei Herman



Yafang & Linli, November 2014, Xiamen ©Sarah Mei Herman



Haiqing, October 2014, Xiamen ©Sarah Mei Herman



Xiaoyu, July 2015, Xiamen ©Sarah Mei Herman





Haiqing, November 2017, Xiamen ©Sarah Mei Herman



Haiqing &amp; Tianyu, December 2014, Xiamen ©Sarah Mei Herman

사라 메이 허먼(Sarah Mei Herman)

198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생으로, 영국 왕립미술대학교에서 사진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기묘한 상황이나 복잡한 감정들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함께 촬영한 초상 작업인 〈Julian & Jonathan〉 시리즈가 'Foam Talent Call 2010'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 아메리칸 빈티지 포토그래피 프라이즈를 수상했다.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를 가졌고, 몬드리안 재단 등에서 기금을 받았다. [www.sarahmeiherman.nl](http://www.sarahmeiherman.nl)